

들쭉 떼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검입)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3,677,366대로 2,300만대를 돌파했다. 용도별로는 자가용 승용차가 2191만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 2.7명당 1대의 승용차를 가진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2만대, 경기지역이 577만대로 거의 절반가량이 집중돼 있다.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국토의 8할이 산으로 되어있고 도로, 주택, 공장 등을 위한 국토 가용면적이 극히 좁은 한국이다. 주차장조차 변변치 않은 처지를 감안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다. 자동차 공급을 홍수처럼 쏟아내고 뒤에 홀린 듯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3대 이상 가진 집도 많다. 그래서 그런지 하루 온종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자고 있는 승용차도 허다하다. 도로와 주차장 공간의 확보속도를 어느 정도 감안하는 게 긴요하다. 그래야 문명의 이기답게 이용할 수 있다.

적절한 속도의 공급과 수요가 긴요

경제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도 공급과 수요가 속도 조절이 되어야 한다. 이런 현상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다. 휴대폰도 그렇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이미 약 6,600만명으로 포화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일어날 수 없다.

6,600만명이라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조차 뛰어넘은 숫자다. 국민 모두가 열광적으로 구입하고 열광적으로 사용한다. 단통법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보조금 등으로 앞뒤 안 가리고 쏟아 부은 때문이다. 더구나 돈버는 어려움을 모르는 10대들의 충동구매를 부추겨댄 때문이다. 한때 1분에 200자도 넘게 문자를 보내는 10대들을 엄지족이라고 조롱하던 사회도 이젠 옛날 모습이다. 이젠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돈과 시간을 투자했겠는가. 이제 휴대폰도 더 이상 팔리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앞뒤 안 가리고 쏟아 부은 응보라고 할수 있다.

들쥐떼 근성을 악용 말아야

카드 빚으로 자식조차 버리는 젊은 부모들이 있다는 충격적 보도가 있었다. 카드 빚 때문에 젊은이는 직장을 얻지도 못했다. 카드회사들이 앞뒤 안 가리고 회원확보에 혈안이었다. 그래서 카드사도 부실덩어리가 되었고 또 신용불량자는 300만명을 육박하는 골칫거리 사회 현상이 되었다. 카드 빚과 각종 대출로 나라가 휘청대서 외국 투자자들조차 경계의 눈으로 보고 있다. 참담한 일들이다.

얼마전 한 주요 경제단체의 장(長)이 한국인의 '들쥐떼 근성'에 대해 언급한 일이 있다. 원래는 1980년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미군장성이 한국인을 '들쥐'에 비유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이 오리지널이다. 뭔가에 홀린 듯 떼지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들쥐 떼처럼 몰려다니다가 결국 모두가 망하는 것을 개탄한 내용이다. 암호화폐며 증권, 부동산에 몰려다니면서 모두 골탕을 먹는 게 그렇다. 컴퓨터를 알아야 된다면 국민 모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그리고 골프가 좋다니 모두가 골프광이 되었다. 영어교육과 조기유학이 좋다니 무작정 어린 자녀를 해외로 보냈다. 이쯤해서 생각해볼 일이다. 훌륭한 CEO는 들쥐근성을 악용하지 않는다. 건전한 소비 생활을 자극하면서 건전하게 기업 발전과 사회성숙을 도모한다.